

# 화려한 볼거리 ... 관람객들 밤 늦게까지 즐거운 감동

## ■ 개막 첫 주말·휴일 스케치

### 우려했던 교통·운영상 문제점 대부분 개선 원더걸스·다이나믹듀오 공연에 열기 고조

지난 12일 오전 8시, 여수세계박람회(8월 12일까지·이하 박람회) 1번 출입구 문이 열리자 줄을 서 있던 관람객들은 환호성과 박수 갈채를 쏟아냈다. 그동안 숲과 눈물, 열매를 맺어, 여수가 해양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개막 첫 날치고는 관람객이 다소 적었지만 우려했던 교통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은 대부분 개선된 모습이었다고, 관람객들은 차분한 가운데 박람회 개관 축하공연이 열리자 흥분과 열광이 넘쳐났다.

이날 박람회장 엑스포디지털갤러리(EDG) 입구 광장에서 열린 개장식은 로제르탈레스 BIE(세계박람회기구) 사무총장과 박람회 조직위와 자원봉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여분간 진행됐다.

오전에는 단체관광을 온 관람객들이 많았고, 이들은 빅오(Big-O), EDG, 스카이다워, 아쿠아리움 등 특화시설을 비롯해 주제관과 한국관 등 주제관 전시관, 체험전시실 등을 둘러

봤다. 관람객들은 질서있게 줄을 서서 입장 시간을 기다렸고, 운영요원들도 한결 능숙한 모습으로 관람객을 이끌었다.

아쿠아리움에서는 대형색채의 물고기와 흰고래 벨루가, 바이칼물범, 정어리떼, 수달의 재롱에 관람객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워했다. 기업관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현대관은 전시관 앞에서 로봇이 등장하는 댄스 퍼포먼스를 열고, 롯데관은 대형 열기구와 타고 떠나는 4D 체험을 선사해 관람객을 사로잡았다.

각 국이 선보이는 국가관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싱가포르관은 무료 여행권을 내걸고 태국관은 길거리 공연 등을 통해 자국 관을 홍보했고, 미국·일본·중국·호주 등의 국가관에도 종일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휴일인 13일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많았다. 어린이들이 자전거 페달을 밟아 불을 밝히고, 그네를 타며 전기를 생산하는 등의 체험 시설이

있는 에너지파크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즐겨 찾았다.

공현준(30·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씨는 "생각보다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 차분하게 관람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의미 있는 전시와 재미있는 공연이 많은 것 같다"면서 "주변 도로 사정도 좋고, 순환버스도 잘 운행돼 오는데 불편함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관람객들은 박람회장 곳곳에서 펼쳐진 중국 전통 사자놀이 공연, 길거리 연주와 퍼포로 재롱을 보며 흥겨워했다. 시원하게 물줄기를 뿜어내는 분수대에서는 아이들이 때 이른 물놀이를 즐겼고, 발을 담글 수 있게 만들어진 박람회장 인근 바닷가에서는 연인들이 오붓하게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다.

가족단위 관람객들은 박람회장 곳곳에 마련된 그늘막과 잔디밭에서 돛자리를 깔고, 느긋하게 도시락을 먹거나 쉬면서 전시관 입장을 기다렸다.

오후에는 인기결그룹 원더걸스와 다이나믹듀오 등이 참가한 '빅웨이브 콘서트', 천막극장에서 펼쳐진 가요 페스타 '부활' 등 다채로운 특별공연도 엑스포 열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박람회의 감동은 밤까지 이어졌다. 홀로그램 영상을 물 위에 투사한 레이저쇼와 해상분수쇼, 불꽃쇼가 함께 어우러진 빅오쇼는 관람객들에게 놀라움과 신선한 감동을 선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몰려드는 관람객 개장식이 열린 지난 12일 오전 8시 여수세계박람회장이 첫 공개되자 기대에 찬 관람객들이 박람회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전시관 구성·콘텐츠 최고다”

### 외신기자·외국인들 찬사 ... 전시장 홍보·관람 정보 제공엔 아쉬움

여수세계박람회를 찾은 외신기자와 외국인들은 주제와 관련된 전시관 구성 및 각종 콘텐츠에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전시장 홍보와 입장객 편의를 위한 관람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13일 박람회장에서 만난 독일 DPA 통신사 기자 고더 더크(45·Goder Dirk)씨는 "박람회장이 바다 위에 조성된 이점을 최대한 살려 바다와 전시관, 다양한 부대 시설이 어울려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 다른 세계박람회와 다른 인상적인 모습이었다"며 "규모는 작지만 시설이 훌륭하고 창의력 있는 콘텐츠는

기대 이상의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평가했다.

특히 해상무대 앞에 설치된 '빅오'와 바다에서 볼 때는 섬의 형상을, 육지에서는 바다 위를 유영하는 향유고래를 연상하게 하는 주제관과 그 콘텐츠 '킬러 콘텐츠'로 꼽았다.

국제관과 전반적인 전시관 운영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관의 경우 국가별 전시 수준의 차이가 심해 일부 전시관에만 입장객들이 몰렸으며, 일부 전시관에서는 전시와 무관하게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관람객과 상호작용을 하는 전시관은 마음에 들었지만 대다수는 일방적으로 메시지

만 전달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의 한 기자는 박람회개 전 해에 대한 정보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교훈 등은 높게 평가하면서도 입장객들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정보를 얻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장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무거운 주제들은 쉽게 풀어 전달해 주고, 많은 전시관들 중에서 입장객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 가장 좋은 정보를 얻고 돌아 갈 수 있도록 각종 관람 코스 등의 정보를 제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신과 외국인들은 환승 주차장 이용 등 낮은 교통 시스템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AFP는 "한국 정부는 많은 돈을 쏟아부어 길을 새로 뚫었다"면서도 "해안가 등 좋은 관광자원이 많지만 교통과 인프라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인도 관람객 무라리 크리시나 파비세티(58·Murali Krishna Pabisetty)씨는 "외국인들은 환승주차장에 주차하고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교통시스템이 낯설고 불편했다"고 지적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빛의만평** - 김중두

이걸 정치라고 하고 있으니 ...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제19차 회기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 5. 22(화) 18:30**

백운동  
**프리도호텔 다이아몬드홀**  
TEL.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정병용

**2012 대한민국 KOREA GREEN ENERGY FESTIVAL**

# 녹색에너지체험전

작은 체험, 에너지 미래에 큰 날개를 달다

부산 전시회 | 2012년 4월 5일(목) ~ 8일(일) / 벡스코(BEXCO)  
대구 전시회 | 2012년 4월 26일(목) ~ 29일(일) / 엑스코(EXCO)  
광주 전시회 | 2012년 5월 17일(목) ~ 20일(일) / 김대중컨벤션센터(KDJCENTER)

www.energyshow.co.kr

주최 **mkE** 지식경제부 | 후원 **GS** 칼텍스

후원 녹색성장위원회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교육청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교육청 | 에너지관리공단 | 한국가스공사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광해관리공단 | 한국방사선폐기물관리공단 | 한국석유공사 | 한국수력원자력(주)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한국전력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참관 및 단체관람 문의 대한민국 녹색 에너지체험전 사무국 TEL : 02-850-3590~1 E-mail : info@energyshow.co.kr 개장시간 AM 10:00 ~ PM 5:00 무료입장

**제3회 2012 대한민국 녹색에너지체험전 공모전**

**공모주제**

1. 대한민국 녹색 에너지체험전 관람 후 느낀 에너지의 소중함
2.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에너지 절약방법
3.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생활 속 아이디어

**공모요강**

접수기간 : 4월 5일(목) ~ 5월 31일(목)까지 현장 및 온라인 접수  
참여대상 :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 자세한 공모사항은 홈페이지(www.energyshow.co.kr)를 참조하십시오.

**기념품** 2012 대한민국 녹색 에너지체험전을 참관 후 설문조사 및 공모전 응모 접수시 친환경 재생 연필 & 책갈피 세트를 드립니다.

**경품** 2012 대한민국 녹색 에너지체험전을 참관하시던 전시회 현장 추첨을 통해 친환경 청구용 자외선 살균청소기를 드립니다.  
※ 경품 추첨은 전시기간 중 토·일 양일간 진행되며, 추첨 시간은 사무국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